

“지역에서 자라는 AI 인재”

GIST, 장성군·지역 고교와 손잡고 창의·융합 인재 키운다

- 5월 14일(수) GIST 행정동에서 임기철 총장, 김한중 장성군수, 양기열 문향고 교장, 반구오 장성고 교감 참석한 가운데 AI 인재 양성 위한 교육 협력 MOU 체결
- 연계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자원 공유 통해 고교-지자체-대학 연계형 교육 생태계 창출



▲ 5월 14일(수) GIST가 장성군, 문향고등학교, 장성고등학교와 함께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장성군, 문향고등학교, 장성고등학교와 함께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5월 14일(수) GIST 행정동 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GIST 임기철 총장·정용화 대외부총장·김재관 대외협력처장과 장성군 김한중 군수·김현영 문화교육과장을 비롯해 문향고 양기열 교장·김형미 교감, 장성고 반구오 교감·이창운 상임이사 등 총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GIST와 장성군, 두 고교(문향고, 장성고)는 지역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고교-지자체-대학이 함께하는 연계 교육모델**을 함께 개발하고,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장성군의 인재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진로 및 융합 선택과목 중심의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진로 탐색을 위한 학과 체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대학 교육자원(시설 및 강사 등) 지원 및 활용 ▲창의·융합 분야 전문가 특강 지원 ▲양 고교 및 지자체·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사업 추진 등 **총 5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 5월 14일(수) GIST가 장성군, 문향고등학교, 장성고등학교와 함께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향고등학교 양기열 교장, 김한중 장성군수, GIST 임기철 총장, 장성고등학교 반구오 교감

임기철 GIST 총장은 “**AI 산업 육성의 핵심은 결국 인재 양성에 있다**”며, “GIST가 축적해온 과학기술 지식과 역량, 그리고 장성군과 지역 고교의 교육적 자원이 **미래세대에게 실질적인 가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GIST는 장성군, 문향고, 장성고와 함께 **AI 및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대학, 고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모델로서, 장성의 인재들이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성군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양기열 문향고등학교장은 "GIST와 장성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학습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지식 탐구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구오 장성고등학교 교감은 "이번 GIST와의 협력은 **우리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도파민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교육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며, 이번 기회를 마련해 준 장성군과 GIST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